

복대동사람들협동조합

제3회 청주시 지속가능발전
시민발전 사례 공모전

| 대표목표 |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 17.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

쓰레기가 예술이 되고,
웃음이 피어나는 지속가능한 마을

복대동사람들은 2021년 설립된 지역 기반 업사이클링·문화예술 단체로, 자원순환과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활동해 왔습니다. 패스트패션과 쓰레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구제샵과 연계한 업사이클 재봉틀 여행, 아동·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업사이클 체험 키트 (하찮은 키팅, 걱정로봇 등)를 운영하며 환경 감수성과 창의적 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사이클 재봉틀 여행

- 구제샵을 방문해 버려진 의류를 원단으로 구매하고 재봉틀을 활용하여 소품을 제작하는 체험·여행 프로그램.

업사이클 체험 키트 개발·운영

- 하찮은 키팅(청바지 원단 재활용), 걱정로봇 만들기(폐가전·스팸통 활용)

쓰레기 밀집지역 벽화 프로젝트

- 쓰레기 밀집지역을 정화하고 주민·아이들과 함께 벽화를 그려 마을 미관을 개선하고 무단투기를 예방하는 프로젝트

제로웨이스트샵 '리케아' 운영

- 일상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포장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제로웨이스트 전문 상점 '리케아'를 운영. 업사이클 상품, 다회용 생활용품, 친환경 대체재 등을 판매하며 시민들에게 지속가능한 소비를 제안

플리마켓 운영

- 소상공인·공예인·여성·취약계층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플리마켓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업사이클 작품과 친환경 공예품의 판로를 개척. 시민들이 책임감 있는 소비를 실천하고, 지역 공동체와 상생하는 장을 마련.

협력 네트워크 기반 교육·문화 활동

- 서원초, 새날학교, 고려인비전센터, 서부종합사회복지관, 복대2동주민자치회, 시장 상인회 등과 협력하여 다문화·취약계층 아동,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업사이클링 교육·체험 운영



벽화 프로젝트



복대동사람들 플로깅 포스터



업사이클 키트 개발 운영



다문화·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교육